

그리스 쇼크... 코스피 1750선 붕괴

‘유로존 디폴트’ 촉발... 63.77포인트 하락 원·달러 환율 4개월만에 1100원선 넘어

그리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유럽발 재정위기 ‘공포’에 코스피 1750선이 무너졌다. 환율은 4개월 만에 1100원대로 올라섰다.

14일 코스피는 이전 거래일보다 63.77포인트(3.52%) 하락한 1749.16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추석 연휴 세계 금융시장 혼란 충격에 8.84P(0.49%) 떨어진 1804.09로 불안하게 출발했고, 점차 낙폭을 키웠다.

선진국의 자구 노력을 촉구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발언이 유로존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된 탓에 아시아 주요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오후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프랑스 대형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내린 영향으로 코스피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삼성증권 김성봉 리서치팀장은 “추석 연휴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인 비중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두 가지 악재가 터지자 코스피가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7거래일째 ‘팔자’에 나서 6901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순매도 규모는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컸다. 기관은 순매도로 출발했으나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 781억원 순매수했다. 기금이 1438억원, 국가와 지자체가 포함된 기타계가 1568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4561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8.64포인트(3.96%) 내린 452.3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그리스 부도 우려에 급등, 4개월 만에 1100원선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30.50원 오른 1107.80원에 마감됐다. 환율이 11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5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상승폭도 지난해 6월 7일 전일 대비 34.10원 오른 이후 최대치였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그리스 부도 우려가 불거지면서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급속히 이동했다”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 증시의 주요 지수도 하락했다.

도쿄증시 닛케이평균주가는 1.14%, 토픽스지수는 1.08% 떨어졌다. 대만증시의 가권지수는 전날보다 2.20% 급락했다.

연동홍기자 exian@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끝낸 국내 금융시장이 ‘유로존 리스크’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3% 이상(63.77포인트) 급락하며 1750선이 무너졌다. 사진은 이날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첫 선 보인 기아 콘셉트카 ‘Kia GT’ 기아자동차는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11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후륜구동 럭셔리 스포츠 세단 콘셉트카 ‘Kia GT’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왼쪽부터 기아차 폴 필포트 유럽법인 총괄부사장과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부사장, 이형근 부회장. (기아차 제공)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상권 활성화 경제계, 회식 장려

경제계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회식 장려 운동’을 펼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전국 13만 개 회원 기업에 회식이나 모임, 직장 내 교류활동을 인건 음식점에서 해결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기업 회식 장려 운동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뿐 아니라 임직원 및 부서 간 교류 활성화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근로자 긴급생활유지비 700만원 용자

소득 30%이상 감소한 근로자 대상 고교생 자녀학자금 300만원 지원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용자제도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생활유지비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교생 자녀학자금 용자제도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용자한다. 이자율은 연 3.0%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노동부는 긴급생활유지비 및 자녀학자금 용자제도를 포함한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종합점수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인

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의료비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확대된 용자사업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용자종류,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유럽계 자금 이탈... 주식·채권시장 약세 가능성

■ 한국경제 어떤 영향 미치나

그리스의 국제 금리가 급등하면 서 부도 가능성이 커져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서는 그리스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기정사실화한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독일이 그리스를 지원하고 중국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인다면 디폴트를 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비관론에 휩쓸

린 많은 무게가 실려 있다. 그리스 부도가 현실화하면 유로존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국내 주식·채권시장도 동반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의 약세는 주로 채권의 강세로 이어져 왔지만, 유럽계 자금이 국제채권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디폴트가 단발성 악재로 끝날 때에는 악영향이 단기간에 그

치지겠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도 전과될 때는 리먼 사태에 버금가는 파문이 생길 수도 있다.

동부증권 장화탁 주식전략팀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스 디폴트는 곧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다른 국가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그리스와 연관된 나라들의 복잡한 역학구

조, 채권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시장의 반응에 따라 국내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천차만별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각국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정책과 국가 간 통화스와프 등 신용경색 확산을 막을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충격이 이전보다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은 그리스 디폴트로 유럽 은행들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2008년과 같은 건전성 문제나 자금 이탈, 원화 가치 급락의 악순환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퇴직 근로자 생계 보호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의 용자금 저리로 지

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를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용자해 준다.

용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주당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49.16 (-63.77)
▼ 코스닥지수	452.30 (-18.64)
▼ 금리 (국고채 3년)	3.31% (-0.05)
▲ 원·달러 환율	1,107.80원 (+30.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전남 청년인턴 LH, 22명 뽑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송태호)는 14일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광주와 전남권(여수, 목포, 나주, 순천)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2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학력에 상관없이 만 29세 미만 미취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취업이 결정돼 임용 대기 중이거나 재·휴학 중인 경우,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력자, 과거 LH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나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알 수 있다. 문의 062-380-045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우어탕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완도읍 전복구이로 100 (완도읍 전복구이리 100-100)
전화: 062-576-8600
영업시간: 11:00 ~ 22:00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